

傷寒論 概括에 관한 小考

緒論	100
本論	100
1. 三陰三陽의 形成背景	100
1) 河圖와 洛書의 理致	100
2) 三陰三陽의 名稱과 分析	101
2. 內經에서의 三陰三陽	103
1) 〈素問·熱論〉에서의 三陰三陽의 分證	103
2) 經絡의 三陰三陽	104
3) 運氣의 三陰三陽	104
3. 三陰三陽의 理解	104
1) 三陰三陽과 六氣와의 關係	104
2) 三陰三陽의 氣血多少	104
3) 三陰三陽의 標本中	105
4) 三陰三陽의 開闔樞	106
5) 三陰三陽의 從氣	108
4. 傷寒論의 治療概念	108
1) 治療의 基本 概念	108
2) 六經病證의 治療 處方 解說	110
結論	112
參考文獻	112

傷寒論 概括에 관한 小考

暎園大學校 韓醫科大學 講師 崔竣培

緒論

中國 漢代의 張仲景에 의하여 쓰여진 《傷寒雜病論》은 自然의 理致와 人體의 適應理論 (天人相應) 을 설명하고 있는 《內經》과 《難經》의 理論을 기초로 漢代 以前의 醫學을 綜合하였다. 人體가 風寒의 邪氣를 받은 뒤에 발생하는 臟腑와 經絡의 病理 變化和 臨床 症候의 特征을 파악하여 疾病의 發生과 發展의 變化 法則과 治療 原則, 그리고 藥劑의 配伍 方法 등에 精밀한 체계를 세워 理·法·方·藥의 一貫性을 갖춘 臨床 醫學의 經典이자 최초의 處方書로, 특히 陰陽의 相對의 盛衰 段階인 三陰三陽을 根幹으로, 外感 疾病과 其他 雜病의 辨證施治에 基本 원칙을 세워, 후세 의학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이에 傷寒論 概念의 바탕이 되고 있는 三陰三陽을 概略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本論

1. 三陰三陽의 形成背景

1) 河圖와 洛書의 理致

河圖를 설명하면 《周易 卦辭》에서 말하기를 “天이 一이고 地가 二이며, 天이 三이고 地가 四이며, 天이 五이고 地가 六이며, 天이 七이고 地가 八이며, 天이 九이고 地가 十이니, 天의 數가 五이고 地의 數가 五이므로 五位가 서로 득하여 각각 합함이 있으니 天의 數가 二十五이고 地의 數가 三十인지라 무릇 天地의 數가 五十하고 또 五이니 이것으로 變化를 이루며 귀신을 행하는 바라.”¹⁾ 하였으니 이는 一六이 水이고 二七이 火이며 三八이 木이며 四九는 金이며 五十이 土임을 의미한다. 이 水는 宇宙 氣化 全體를 포함한 一數이자 또한 이 水에서 시작하여 모든 宇宙氣化가 段階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므로 一陽의

1) 金赫濟 《原本集註 周易》 pp. 371-372 天一地二天三地四天五地六天七地八天九地十天數五地數五五位相得而各有合天數二十有五地數三十 凡天地數五十有五 此所以成變化而行鬼神也

始는 모든 陽을 포함한 終에서 來한 것이고 그 下降의 氣는 南의 天上에서 來한 것이므로 東의 木에서 南方火로 發산되었던 少陽數인 七火가 九數로 變換한 다음에 北地로 下降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一陽의 數는 天氣가 七火中에서 九金으로 變하여 來한 것이기 때문에 熱한 天陽의 氣가 九金의 涼氣에 의하여 收斂되고, 下降하여 地의 寒質에 의하여 交感되어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太陰數인 六數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고 한 것이다. 그리하여 水의 母體는 天上의 熱한 陽氣인 것이요, 그를 이루는 것은 서로 交感 調和되는 北地의 冬寒의 質인 것이며, 또한 下降하였던 이 陽氣에 의하여 老化한 太陰의 質이 分離되어 다시 東으로 進하여 南方으로 發散 上升하는 것이다. (그림 1)

洛書를 설명하면 河圖와 같으나 金火가 交易하는 것은, 金의 收斂作用이 發散 上升하는 木火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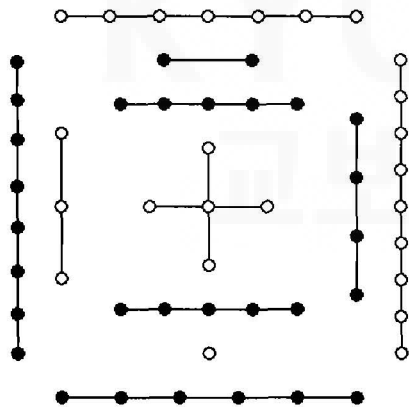


그림 1 河圖(本體)

運中에서 이미 이루어 지고, 火性的 燥로 就함은 收斂하는 秋金의 위에서 長明하고 있는 것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그러므로 河圖는 우주생성의 변화를 그대로 나타내는 體를 의미하는 象이라 하고, 洛書는 生成

과 變化를 이루는 定立의 用을 의미하는 形象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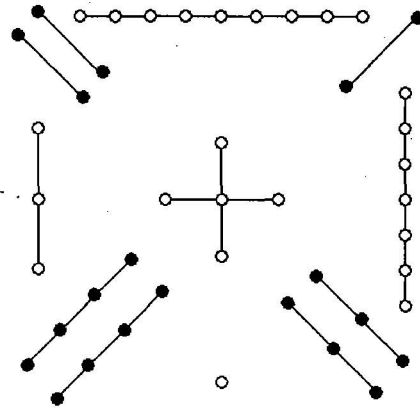


그림 2 洛書(作用)

한다. 河圖가 順生의 象이고 洛書가 易極의 象이긴 하지만 이미 河圖 자체에서 順中에 逆이 있고, 洛書 자체에 逆中에 順이 있는 것으로, 이것이 곧 陽中에 陰이 있고 陰中에 陽이 있는 天地의 형상이며 또한 生成의 理致를 內包하고 있는 것이므로 永遠不息이 이루어 진다.

2) 三陰三陽의 名稱과 分析

韓醫學의 原理인 陰陽學說은 太極에서 시작하여 陰陽, 四象, 八卦, 六十四卦의 順으로 發展되는 法則으로 認識되고 있다. 天의 六氣의 流行과 人體의 六經의 運行이 어떻게 三陰三陽으로 歸結됨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三陰三陽은 陽의 三段階와 陰의 三段階으로 된 變化의 體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四象에서의 太中小를 나눈 것이자 八卦에서의 坎離 二卦를 除한 六卦의 象인 것이다.

坎離 二卦를 除한 이유는 陰陽五行의 變化가 坎離 즉 水火의 變化를 나타내는 것으로, 坎은 陰極生陽의 火가 始生함을 의미함이며, 震은 二陽으로 進하는 初段階의 少陽인 것이고, 兌는 陽이 長

한 二段階인 兩陽이 합류된 合陽의 象인 陽明인 것이며, 乾은 陽의 極盛인 三段階인 老陽이며 太陽인 것이고, 巽은 陰으로 退하는 初段階인 厥陰인 것이며, 艮은 陰이 長한 二段階의 象인 少陰이며, 坤은 陰의 極盛인 三段階인 老陰의 太陰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이 陽이 生함은 火가 生함이고, 陽이 長하여 盛함도 火가 長하여 盛함인 것이며, 陰이 生함은 水가 生함이고, 陰이 長하여 盛함도 水가 長하여 盛함인 것이므로 이 坎離의 水火는 六卦의 전체에 이미 포함되어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

그리고 그 變易의 이치에서 少陽의 震이 作用하는 자리가 厥陰風木의 體가 되어 陽이 처음 陰을 分離하게 되고, 陽明의 兌가 作用하는 자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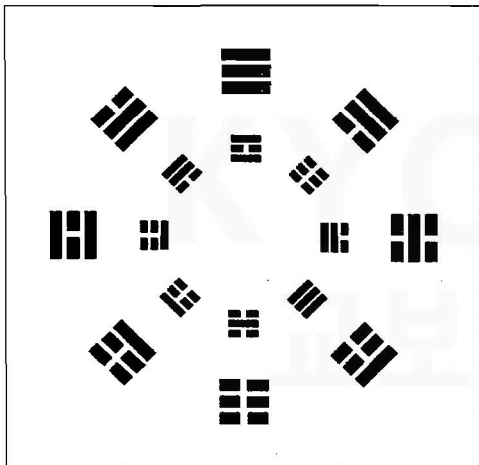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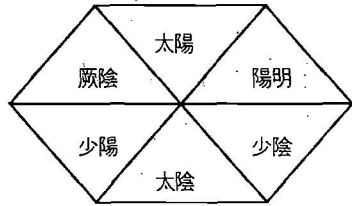


그림 3 先後天卦合圖 (內後天 外先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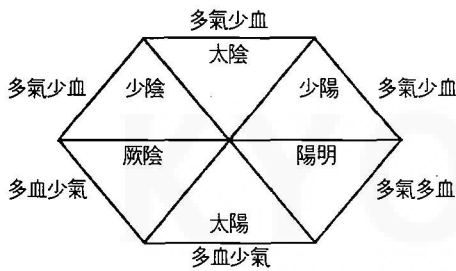
少陰君火의 體가 되어 陽進에 의하여 陰의 分離가 上半을 지나며 陽과 陰이 交構하게 되어 水火升降의 調和가 이루어 지는 것이며, 太陽의 乾이 作用하는 자리가 太陰濕土의 體가 되어 少陽이 厥陰의 陰을 分離함이 進하여 少陰의 交構를 거쳐 陽의 極盛에 이르러 太陰의 濕을 모두 分離하게 됨인 것이고, 厥陰의 巽이 作用하는 자리가 少陽相火의

體가 되어 陰이 陽을 火氣의 長存속에서 收하려는 것이고, 少陰의 艮이 作用하는 자리가 陽明燥金의 體가 되어 燥火가 收降으로 化하여 清肅之命을 발휘하며 陰液을 下降하여 漸盛하게 하고 兌에서의 兩陽合明이 收降하여 二陰의 艮에서 이루어 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太陰의 坤이 作用하는 자리가 太陽寒水의 體가 되니 厥陰의 作用에 의하여 少陽의 火氣가 收斂됨이 陽明의 清肅기능으로 化함을 거쳐서 太陰이 太陽의 陽氣를 모두 下降시켜 陰液으로 化함의 象이 되는 것이다. (그림 4)

그러므로 二陰이 陽에 의하여 分離된 坎中の 陰極生陽 中에서 生한 陽氣가 離火로 발휘되며 이가 進行하여 先天 乾의 위치에서 極盛하는 것이고, 陽이 陰에 의하여 收斂됨은, 離中の 陽極生陰 中에서 生한 陰氣가 坎水로 발휘되며, 이가 退行하여 先天 坤의 위치에서 極盛하게 되는 것이다. 陽의 進함은 곧 火가 進함인 것이고 陰의 退함은 곧 水가 退함인 것이며, 또한 陽이 進行함은 離火의 作用에 의하여 乾陽이 一陽에서 二陽을 거쳐서 三陽으로 進하는 것이고, 陰이 退行함은 坎水의 作用에 의하여 坤陰이 一陰에서 二陰을 거쳐 三陰으로 退하는 것이며, 이 作用이 易의 變易의 法則에 의하여 뒤바뀌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림 4)



本體圖



作用圖

强이 나타나고, 二日에는 陽明이 받아 들이는데 陽明은 肌肉을 主하고 그 脈은 코를 돌아 눈에 絡 하므로 身熱, 目疼, 鼻乾과 不得臥의 증상이 나타 나며, 三日에는 少陽이 받아 들이는데 少陽은 膽 을 主하고 그 脈은 脇肋을 돌고 귀를 絡하므로 胸 脇痛과 耳聾증상이 나타나고, 三陽經絡은 모두 그 病을 받음에 아직 臟에 入하지 않으므로 發汗이 가능하다. 四日에는 太陰이 받아들인데 太陰脈 은 胃中을 분포하고 * 에 絡하므로 腹滿과 * 乾증 상이 나타나고, 五日에는 少陰이 받아 들이는데, 少陰脈은 腎을 貫通하고 肺에 絡하고 舌本에 연결 되므로 口燥, 舌乾과 渴症이 나타나며, 六日에는 厥陰이 받아 들이는데 厥陰脈은 陰氣를 따라 肝에 絡하므로 煩滿과 囊縮의 증상이 나타난다. 三陰三 陽은 五臟六腑 모두 病이 들면 營衛가 不行하고 五臟이 不通하면 죽는다. 그 두 가지가 寒에 感하 지 않으면 七日에는 巨陽의 病이 衰하여 頭痛이 조금 治愈되고, 八日에는 陽明病이 衰하므로 身熱 이 조금 治愈되며, 九日에는 少陽病이 衰하여 耳 聾 微聞이 나타나고, 十日에는 太陰病이 衰하여 腹滿이 예전과 같이 감쇠한 즉 음식 생각이 나고, 十一日에는 少陰病이 衰하여 渴症이 그치고 舌乾 이 그치고 재체기를 하며, 十二日에는 厥陰病이 衰하여 囊縮이 없어지며 少腹이 약간 내려가고 邪氣가 모두 없어져서 病을 앓는 기간은 그친다.”²⁾ 라고 되어 있으나 이 모두는 病의 進行을 단지 日 時의 경과에 따른 구분일 뿐이기 때문에 큰 의의 가 있을 수 없으나, 張仲景은 이런 發展 段階의 決定을 人體 自身이 가지고 있는 稟氣의 영향에 따 라 病의 發展 段階의 狀態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놓았다. 이 轉變의 結果는 결국 寒熱로 나타나는 陰陽의 虛實로 歸結될 수 있다.

2. 內經에서의 三陰三陽

1) 〈素問·熱論〉에서의 三陰三陽의 分證

內經에서의 傷寒에 관한 言及은 〈素問 熱論〉에 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岐伯이 가로되 “傷寒 一日에 巨陽이 받아 들이는 故로 頭痛과 腰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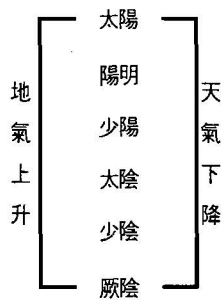
2) 黃帝內經素問今釋 p. 155.

2) 經絡의 三陰三陽

經絡 生理를 참조

3) 運氣의 三陰三陽

運氣는 五運과 六氣로 構成되어 있으며, 五運은 木運 火運 土運 金運 水運의 총칭이다. 이는 大運, 主運과 客運으로 區分 說明된다. 六氣는 風 寒 暑 濕 燥 火의 總稱이다. 六氣는 항상 三陰三陽으로 대표되며, 이는 主氣와 客氣로 나누어 지는데, 主氣는 一年中의 正常的인 規律 狀態를 說明하는 것으로 厥陰風木, 少陰君火, 少陽相火, 太陰濕土, 陽明燥金, 太陽寒水의 順, 즉 木 火 火 土 金 水의 順으로 되어 있고, 客氣는 기후의 이상변화를 說明하는데 쓰이며 年年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客氣라 칭하는데, 이는 巳亥厥陰風木, 子午少陰君火, 丑未太陰濕土, 寅申少陽相火, 卯酉陽明燥金, 辰戌太陽寒水의 順으로 三陰三陽의 轉變 順序와 같다. 큰 의미에서의 흐름속에 포함된 年年의 변화 속에 살고 있는 人體 또한 전체적 氣運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順은 生이며 逆은 病이므로, 疾病은 逆으로 轉變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傷寒論의 六經의 順序는 客氣의 逆方向인 太陽, 陽明, 少陽, 太陰, 少陰, 厥陰의 順으로 되는 根據가 된다. (그림 5)



3. 三陰三陽의 理解

1) 三陰三陽과 六氣와의 關係

自然의 理致에서 위에 說明한 것을 바탕으로, 六氣에 있어서의 初之氣는 厥陰 風木이 震의 一陽 爻에 해당하는 少陽의 陽氣에 의하여 陰을 陽으로 처음 分離하는 春初의 冬風이 부는 시기에 해당하므로 厥陰을 風木이라 하는 것이다. 二之氣는 少陰君火가 兌의 二陽 爻에 해당하는 陽明의 陽氣에 의하여 陰을 陽으로 中단계로 分離하는 春夏의 사이에서 兩陽合明의 象으로 水氣를 上升하게 하고, 火氣를 下降하게 하여 水火陰陽을 交構하게 하며, 熱로 向하여 進化하게 하고 있으므로 少陰君火를 熱이라 하는 것이다. 三之氣는 太陰濕土가 乾의 三陽 爻에 해당하는 太陽의 陽氣의 極盛에 의하여 夏季의 土旺에서 陰이 陽으로 모두 分離되어 流通, 供給, 條達되고 있으므로 太陰土를 濕이라 하는 것이다. 四之氣는 少陽相火가 巽의 一陰 爻에 해당하고 初生하는 厥陰의 陰氣에 의하여 火氣가 長存하는 秋初에서 收하려 하며, 君火를 도와 결실을 재촉하고 있으므로 少陽을 相火라고 하는 것이다. 五之氣는 陽明燥金이 艮의 二陰 爻에 해당하는 少陰의 陰氣에 의하여 相火를 거치며 調和된 陽氣를 收斂하면서 清肅을 발취하여 秋冬의 사이에서 결실을 이룩하고 있으므로 陽明을 燥金이라 하는 것이다. 六之氣는 太陽寒水가 坤의 三陰 爻에 해당하는 太陰의 陰氣의 極盛에 의하여 冬寒의 水旺에서 陽을 陰으로 모두 下降 貯藏하게 하고 있으므로 太陽을 寒水라고 하는 것이다.

2) 三陰三陽의 氣血多少

三陰三陽을 이해하기 쉽게 一年동안 변화를 비유하여 설명하자면, 太陽은 本體로는 三之氣 즉 陽이 극도로 달한 기점이며, 作用으로는 六之氣에 해당하여 陽氣가 거의 소진 되어 추운 寒水之氣가 나타나는 기점으로, 陽이 적고 陰이 차있는 상태인 多血少氣가 되는 것이며, 陽明은 本體로는 二之氣이지만 作用으로는 五之氣로 陽이 殘存하고 있는 상태에서 陽의 强과 陰의 貯藏이 이루어지는 가을과 같은 단계이므로, 陽도 많고 陰이 많은 多氣多血이 되는 것이며, 少陽은 本體로는 初之氣이지만 作用으로는 四之氣로서 陽이 始生하여 繁盛한 더운 相火之氣가 충만되어져 있으므로, 陽이 많고 陰이 적은 상태인 多氣少血로 되며, 太陰은 本體로는 六之氣이지만 作用에서는 三之氣로 作用하여, 陽이 上升하여진 상태에서의 陰이 下降을 하기 시작하여, 이것이 濕의 형태로 발달한 季夏의 장마와 같은 시기이므로, 陽이 많고 陰이 적은 多氣多血로 되고, 少陰은 本體로는 五之氣이지만 作用에서는 二之氣로 초여름의 溫度와 濕도가 적절한 상태에서 陰半陽半되어지며 날씨는 포근한 陽氣가 점차 확산되는 시기로 식물은 꽃이 피고 동물은 교미하는 시기이므로, 陽이 많고 陰이 적은 상태인 多氣少血이며, 厥陰은 本體는 四之氣이지만 作用은 初之氣로 大寒 이후의 아직 추운 초봄에서 陽氣가 점점 발산되는 시기로, 아직은 陰이 충만하고 陽이 一陽으로 적은 시기이므로 多血少氣이다.

3) 三陰三陽의 標本中

	太陽	陽明	少陽	太陰	少陰	厥陰
標	太陽	陽明	少陽	太陰	少陰	厥陰
中	少陰	太陰	厥陰	陽明	太陽	少陽
本	寒水	燥金	相火	濕土	君火	風木
從氣	從標從本	從中	從本	從本	從標從本	從中
開闔樞	開	闔	樞	開	樞	闔
氣血	多血	多氣	多氣	多氣	多氣	多血
多少	少氣	多血	少血	少血	少血	少氣

三陰과 三陽은 각각 表裏가 있어 그 氣가 相通하므로 각각 互根의 中氣가 있는 것이다. 少陽은 本氣가 火이며 火氣는 上에 있고 厥陰으로 더불어 表裏가 되는 것이니, 이를 '中에 厥陰이 見한다.'고 하므로 相火이면서 中의 風木의 化함을 겸하는 것이다.

陽明은 本氣가 燥이기 때문에 燥氣는 上에 있고 太陰으로 더불어 表裏가 되는 것이니, 이를 '中에 太陰이 見한다.'고 하므로 燥氣이면서 中의 濕土의 化함을 겸하는 것이다.

太陽은 本氣가 寒이기 때문에 寒氣는 上에 있고 少陰으로 더불어 表裏가 되는 것이니, 이를 '中에 少陰이 見한다.'고 하므로 寒水이면서 中의 熱의 化함을 겸하는 것이다.

厥陰은 本氣가 風이기 때문에 風氣는 上에 있고 少陽으로 더불어 表裏가 되는 것이니, 이를 '中에 少陽이 見한다.'고 하므로 風木이면서 中의 相火의 化함을 겸하는 것이다.

少陰은 本氣가 熱하기 때문에 熱氣는 上에 있고 太陽으로 더불어 表裏가 되는 것이니, 이를 '中에 太陽이 見한다.'고 하므로 熱氣이면서 中의 寒水를 겸하는 것이다.

太陰은 本氣가 濕이기 때문에 濕氣는 上에 있고 陽明으로 더불어 表裏가 되는 것이니 이를 '中에 陽明이 見한다.'고 하므로 濕土이면서 中의 燥金의 化함을 겸하는 것이라 하겠다.

대개 上의 六氣인 風寒暑濕燥火는 三陰三陽의 本이 되고, 下의 三陰三陽은 六氣의 標가 되는 것이며, 이 標本의 사이에 相合하여 中見하는 氣가 있다. 사람에게 있어서도 이 自然의 氣化理致로 더불어 같은 것이라 칭하여, 太陽, 少陽 등 三陰三陽 각각의 陰陽의 지칭을 '標'라 하고, 그 經에 絡하고 있는 가령 太陽에서의 中에 絡한 少陰經과 같음을 '中'이라 하는 것이며, 太陽經에서의 本寒의 氣를 '本氣'라 하는 것이므로 陰陽의 지칭을 '標'라 하고, 그 陰陽經이 합하여 中에서 絡함을 '中'이라 하며, 經마다 해당되는 六氣를 '本'이라 하여 "標本中"이라 칭하는 것이다.

4) 三陰三陽의 開闔樞

太陽太陰爲開 少陰少陽爲樞 厥陰陽明爲闔³⁾이 중요 근간이 되며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太陽이 開가 된다는 것은 太陽은 全身의 表皮 皮毛의 分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곳은 陽氣가 敷布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곳으로 開陽이 잘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太陽은 表를 主하므로 少陽의 轉樞를 받아 陽氣를 全身으로 敷布하여 공급하는 開達의 의미이며, 에너지를 表로 輸送케 하여 外護作用을 발휘한다는 의미로서, 太陽의 陽氣의 근원은 坎卦의 형상과 같이, 그 중의 一陽인 命門의 火가 少陽(足少陽膽)의 半表半裏로 水木相生의 義로 그 발산력을 승화시켜 太陽經의 氣化가 末梢까지 순조롭게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足少陰과 太陽이 表裏가 되는 것이며, 腎의 命門의 火力에 의하여 末梢까지 陽은 開達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이 곳의 表皮層에서 奏理를 회전하여 下降하는 의미인 모세정맥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表皮層에서 下降하는 陽極生陰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素問 至真要大論》 p. 438.

그러므로 太陽에서는 陽氣가 開達됨과 동시에 여기에서 陽極生陰이 일어나는 前礎가 되며, 生陰이 된 陰氣를 開하는 것은 肺가 하는 것이다.

陽明이 闔이 된다는 것은, 陽明은 裏를 主하므로 陽氣를 收納하여 각 臟腑와 全身의 肌肉으로 支援를 하고 따라서 언제나 陽이 충만하여 그 잉여됨을 發泄하지 않고 陰으로 化하므로 그를 闔이라고 하는 것이니, 陽明胃中에서도 生한 穀氣가 氣化作用에 의하여 氣旺生血이 되어야 할 것인바, 足陽明胃는 艮山의 形狀上 一陽이 위에서 固衛함과 같이 胃에서 生한 穀氣를 外까지 敷布하면서도 發泄하지 않도록 그 中心力으로써 固衛하는 作用이 있는 것이요, 手陽明大腸은 九數의 老化의 의미로 大腸으로 내려온 소화된 나머지의 粗粕에서 水分을 흡수하며 元氣가 發達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水分의 津液이 곧 氣로 化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少陽이 樞가 된다는 것은 足少陽震木이 三水에 居하는 陽進의 형상을 하는 것처럼 水木相生의 理致에서 命門의 火力에 힘입어 다시 艮과 더불어 心火를 生하여 發散과 上升에 합류하므로 半表와 半裏에 居하여 內外로 통하는 氣의 出入을 司하였으니 水木火로 연결하는 의미와 같이 轉樞作用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三木이 水와 火의 중간인 半升의 위치에 해당하는 것과 같이 이 少陽經의 위치도 上下에서도 身半에 해당하는 脇肋을 主로 하고, 前後에서는 側部에 해당한다. 또한 手三焦도 三焦의 氣化가 잘 되면 腎의 命門에서 原한 火氣가 木火의 發散力으로 太陽經까지 順開되고 그 順開 上升함이 잘 되어야 人體의 水分대사인 決瀆作用도 스스로 순조로와질 수 있는 것이다.

太陰이 開가 된다는 것은 脾의 十土인 坤卦의 형상이 純陰의 형상을 한 것과 같이, 純陰으로 收

斂한 火를 融化하여 陰極生陽의 의미에서 陰氣를 全身으로 敷布하면서 陽을 開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는 上下 四方의 機轉에서는 下의 腎水가 陰極生陽이 되는 것이지만 表裏 內外에서는 太陽의 表와 반대인 太陰이 內가 되므로 이곳의 중심이 또한 上이라 하면 下의 위치이기도 하다. 太陰은 곧 陰 中의 陰에 居하여 血을 通솔하여 그 火衝의 生陽 作用에 의하여 陰氣를 敷布하면서도 脾胃의 元陽을 開하여 元氣의 생산을 촉진함과 아울러 氣血을 전신으로 敷布하여 開시키는 것이니 이러한 의미에서 開라고 하는 것이요, 이 開는 穀氣를 생산하는 中에 해당하므로 外인 太陽의 末梢까지 氣化가 調和되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兌金인 手 太陰의 肺는 氣를 조절 분포하여 開達에 협력하지만 그 金性에 의하여서는 上升의 極에서 陽을 收하여 陰을 生하는 交易의 이치가 있는 것이니, 金 水의 收斂 下降의 始가 되는 것이고, 足太陰의 脾에서는 그 沖和의 기능으로 水穀의 消化를 도와 元氣의 生産과 開達을 促進하는 기능이 있다.

少陰이 樞가 된다는 것은 足少陰腎이 坎卦에 해당하므로 坎卦의 형상이 二陰中에 一陽이 在하여 陰極에서 陽이 생성하는 의미이므로 이는 곧 下降의 極에서 上升이 始하는 命門火가 膀胱經의 氣化까지 順開하는 原點의 轉樞의 인 면에 해당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 腎氣가 充足하여야만 그 에 힘입어 少陽의 樞에서 太陽의 開로 達함이 순조로운 것이니 이는 그 진행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요, 退行인 腎의 藏蓄作用도 있는 것이므로 封藏의 本이라 일컫는 것이다. 이러한 機能때문에 厥陰과 陽明의 間도 그 權衡을 得하니, 이는 人體의 모든 收斂機能은 金水機能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반대로 이곳에서 生한 陰極生陽機能의 發揮가 進陞되면 自然的으로 木火로 進하여 太陽의 表分으로 開達이 化함이 되는 것이

니, 坎卦의 一陽은 上升의 시초가 되고 二陰은 下降과 藏蓄의 本이 되는 것이며, 이 兩面의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轉樞라고 하는 것이다. 手少陰이 離卦에 해당함도 역시 그 卦의 형상이 二陽의 中에 一陰이 在함과 같이 陽의 極에서 一陰이 下降하는 의미이므로 木火의 發散 上升의 발휘는 陽氣가 太陽의 表分에 開達됨을 의미함이고 下降의 시작은 表皮中의 肺金분야인 靜脈으로 下降을 始함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少陰의 轉樞는 곧 陰陽의 升降機轉을 순조롭게 함이므로 坎中의 一陽이 上升하고 離中의 一陰이 下降하여 서로 交構를 한다면 坎은 坤으로 변하고 離는 乾으로 변하며, 이 交構의 의미로써 乾坤을 합하면 太極이 되는 것과 같이 이 上下의 轉樞가 人身의 水火 升降은 물론 전체적인 健康의 調和를 이루는 關鍵이 된다. 그러므로 上升이 陽進으로 합류하면 少陽의 轉樞에서 太陽의 開達로 이루어 지는 것이요, 下降이 陰으로 退하여 腎의 封藏과 養를 같이 하면 厥陰과 陽明의 間에도 합류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上下의 機轉이 순조롭게 되면 脾도 自然 中和의 統血기능으로 陽을 開하며 中에서 전신을 합류하는 健運의 轉함을 이루는 것이다.

厥陰이 間이 된다는 것은 肝의 八木인 巽卦의 형상이 二陽의 下에 一陰을 한 것과 같이, 陰이 進하여 陽이 生하는 형상이며, 肝에서는 에너지를 分離 放出하여 全身의 氣化作用으로 발휘하지만 언제나 營養素인 陰液의 分離가 곧 氣로 化하는 것이므로 그 부족을 예방하기 위하여 陰을 滋養하는 것이며, 그 收斂 下降하려는 陰을 滋養함이 곧 間의 氣인 것이니 收斂과 下降은 本來 金水기능인 것과 같이, 肝의 一陰도 金水에서 來源함에 힘입어 充당되고 維持되는 것이므로 이 維持하려는 陰의 收斂에 의한 調和된 기능을 間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陰液이 分離되면 陽의 氣化로 되듯

이 이와 반대로 氣가 收斂되어도 津液으로 化하여 陰液을 충당함과 아울러 그 耗散을 방지한다. 그러므로 足厥陰이 血을 藏하여 閫의 기능을 발휘한다면, 手厥陰 또한 離의 二水에 속하는 心陰에 해당하므로 心火를 발휘케 하면서 一陰으로 下降함에 협력하는 것이니, 이는 上下가 서로 調和를 이루며, 全身의 開闔의 道에 調和되다.

5) 三陰三陽의 從氣

人體를 治함에 있어서도 自然의 理論에 順應하듯이 順理의인 면으로 從하여야 하기 때문에 標를 從하여 治하는 수도 있고 本을 治하는 수도 있으니 이 법칙을 〈素問 至真要大論〉에 설명하여 놓은 바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⁴⁾

少陽과 太陰은 火가 陽으로 통하고 濕이 陰으로 통하여 標本이 서로 같기 때문에 그대로 本을 從하여 少陽은 火氣로 治하고 太陰은 濕氣로 治하면 되는 것이요, 少陰은 本은 熱이지만 標는 陰의 찬 것을 의미하고 太陽은 本은 寒水이지만 標는 陽의 더운 것을 의미하여 그 本과 標가 다르기 때문에 혹은 本을 從하여 治하기도 하고 혹은 標를 從하여 治하기도 하는 것이며, 陽明의 本氣는 燥金이고 中은 太陰濕土이기 때문에 이는 土와 金이 相生하며 火金이 交易하는 과정에서 燥가 土濕을 從하여 化하는 것이므로 그대로 中인 濕을 從하여 治하는 것이고 厥陰 風木의 中은 少陽의 火이므로 역시 木과 火가 相生하는 이치때문에 木이 火를 從하여 化하는 것이므로 그대로 中인 火를 從하여 治하면 되는 것이다.

4) 〈素問 至真要大論〉p. 438. 少陽太陰從本少陰太陽從標從本陽明厥陰不從標本從乎中也

4. 傷寒論의 治療概念

1) 治療의 基本 概念

傷寒論에서 治療方法의 言及은 藥物, 鍼灸, 吐法, 煎法 등의 方法이 있지만 韓藥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하겠다.

傷寒論에서 處方의 藥物構成은 自然의 原理로 구성되어 있고 傷寒論序文에서 볼 수 있듯이 伊尹의 處方을 활용하였다. 藥物構成의 원칙은 本草學의 基本理論인 陰陽 理論에 바탕을 둔 氣(陽) 味(陰)論의 寒熱溫涼, 上升과 下降의 機轉과 五味 各各의 作用을 疾病의 機轉에 적절히 적용하여 구성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河圖 洛書에 본 것과 같이 木火에서는 發散 上升을 하고 金水에서는 收斂 下降을 하며 土는 中和를 하는 天地 運行的 機轉을 말하는 것이니, 水는 下降機轉에 해당하므로 潤하며 下降한다고 한 것으로 易에서 말한 水는 濕으로 流한다 함과 相通되는 의미인 것이요, 火는 上升機轉에 해당하므로 炎하며 上升한다 한 것이니, 易에서 말한 火는 燥로 就한다는 것과 相通하는 의미인 것이다.

木은 曲直이며 酸을 作한다는 것은 冬水인 陰이 變하여 陽으로 化하기 때문에 半升의 위치에 해당하는 것이며, 上으로 火의 上升으로 향하는 것은 陽이고 下로 水의 潤下함에 連하여 生함을 받아 收納하는 것은 陰이니, 陰은 曲을 의미하고, 直은 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曲하며 直한다 한 것이다.

火는 炎上이며 苦를 作한다는 것은 火가 처음 上炎할 때는 일찌기 苦인 것이 아니고 炎炎하기를 그치지 않으나 焦灼함이 이미 오래되면 苦

의 味가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이것을 말하길 炎上이 苦를 作한다고 한 것이니, 모든 식물을 불에 태우면 그 맛이 쓰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土는 稼穡이며 甘을 作한다는 것은 土는 中央에 해당하며 中和의 德性を 지녔으므로 만물을 생성하는 것이며, 甘도 또한 味의 德이기 때문에 解毒 緩和하면서도 發育의 의미로 元氣를 補한다, 그러므로 土에다 심고 가꾸어 生成된 五穀은 모두가 甘으로 통하여 人體의 元氣의 要素가 되는 糖質을 많이 함유하므로 稼穡이 甘을 作한다 한 것이다.

金은 夏火인 陽이 變하여 陰으로 化함하기 때문에 半降의 위치에 해당하는 것이며, 下로 水의 下降으로 向하는 것은 陰이고 上으로 火의 炎上에 連하여 收斂하는 것은 陽이니, 陽은 그대로의 변화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從의 의미인 것이고, 革은 陰으로 變化한 의미인 것이므로 從하며 革한다고 한 것이다. 金의 從革은 辛을 作한다 함은 從革이란 夏火가 秋金으로 바뀌는 改革인 것이며, 火熱이 바뀌는 摩擦의 象이 있어 辛辣한 의미이므로 從革이 辛을 作한다.

水는 潤下이며 鹹을 作한다는 것은 水는 陰盛으로 丙에 微陽을 藏하였으므로 流動하니 浸潤하면서도 下降한다. 그러나 그 發源이 일찌기 鹹한 것이 아니고 흘러 바다에 이르러 凝結하여 오래 되면 鹹의 味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이야기하자면 辛甘은 發散하므로 陽이 되고 酸苦는 湧泄하므로 陰이 되며, 鹹味는 湧泄하므로 陰이 되고 淡味는 滲泄하므로 陽이 되니, 여섯 가지는 혹은 收하고 혹은 酸하며 혹은 緩하고 혹은 急하며 혹은 燥하고 혹은 潤하고 혹은 軟하고 혹은 堅하므로 그 유리한 바로써 행하게 하여 그 氣를 調和함으로써 平順하게 하는 것이다⁵⁾ 하였으니, 辛은 氣로 走하여 性이 發散하고,

甘은 中央에 해당하는 味이므로 능히 四方에 灌溉를 하기 때문에 辛甘은 發散을 主하므로 陽이 되는 것이요, 苦는 泄下하고 또한 炎上이 苦를 作하여 上極이 反下하고 酸은 收降을 主하고 또한 冬水에서 來한 春生의 木味에 속하여 능히 上으로 上升하고 下로 泄下기 때문에 酸苦는 湧泄(湧은 吐함이고 泄은 瀉함임)을 主하여 陰이 되는 것이요, 淡味는 滲泄하여 小便을 有利하게 하며 竅를 通하게 하기 때문에 陽이 되는 것이다.

寒熱溫涼은 氣이고, 酸苦甘辛鹹은 味이며, 氣는 陽이 되고 味는 陰이 되며, 氣厚한 것은 純陽이 되고, 氣薄한 것은 陽中の 陰이 되며, 味厚한 것은 純陰이 되고, 薄한 것은 陰中の 陽이 되므로, 氣가 薄한 것은 陽氣가 上行하기 때문에 능히 表로 泄하여 發泄하는 것이고, 厚한 것은 능히 發熱을 하는 것이며, 味가 厚한 것은 陰味가 下行하기 때문에 능히 下로 泄하는 것이며, 薄한 것은 능히 通裏를 하는 것이다.

輕清한 것은 升浮하므로 陽이 되고, 重濁한 것은 沈降하므로 陰이 되는 것이며, 天에 本한 것은 上으로 出하기 때문에 清陽은 上竅인 耳目口鼻로 出하고, 地에 本한 것은 下로 出하기 때문에 濁陰은 下竅인 前後 二陰으로 出하며, 陽은 皮膚로 升散하기 때문에 清陽은 肌表인 奏理로 發하고, 陰은 五臟에서 氣를 收하기 때문에 濁陰은 五臟으로 走하는 것이며, 四肢는 諸陽의 本이기 때문에 清陽은 四肢로 歸하고, 六腑는 水穀을 轉化하기 때문에 濁陰은 六腑로 歸한다.

5) <素問 至真要大論> p. 439 辛甘發散爲陽 酸苦湧泄爲陰 鹹味湧泄爲陰 淡味滲泄爲陽 六者或收或散或緩或急或燥或潤或軟或堅以所利而行之 謂其氣使其平也.

2) 六經病證의 治療 處方 解説

위의 理論을 바탕으로 張仲景의 傷寒論에 나타난 治法은 三陰三陽 각각의 原理에 根據를 두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概括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太陽은 寒水之氣가 본이며 標는 陽이기 때문에 從標從本하며 少氣之經이다. 表證에는 太陽의 表에서의 開達作用의 不及으로 인하여 表에 熱氣가 鬱하여 陽明의 肌肉에 貯藏되어 있는 津液을 燒盡시켜 전체적으로 熱化가 될 우려가 있을 때 麻黃湯(麻黃 桂枝 杏仁 甘草)을 사용하는데 麻黃 桂枝의 辛溫性으로 發汗의 方法으로 鬱熱을 풀어 줌과 동시에 杏仁으로 熱化의 上升되고 있는 機轉을 下降의 機轉으로 行하게 하고, 甘草로써 中和의 의미를 잃지 않아 調和를 유지시키는 처방으로, 表의 陽氣를 식히면서 本의 寒水 즉 津液을 保存하는 처방이다. 太陽의 開達作用이 太過되어 表의 陽氣가 汗의 형태로 泄氣되어 亡陽의 우려가 되는 상태에서 桂枝湯(桂枝 芍藥 生薑 大棗 甘草)을 사용하는데 芍藥의 서늘한 기운이 새고 있는 汗을 收斂시키고 桂枝 生薑 大棗 甘草의 辛甘味가 泄氣가 된 상태를 補完시켜 주는 처방으로, 表의 陽氣를 補完시켜 本의 寒水之氣를 收斂하는 처방이다. 이를 發展시킨 것으로는 中焦의 氣(太陰之氣)를 더욱 강화하려고 飴糖을 첨가한 小建中湯이 있으며, 후세에 黃耆를 첨가하여 皮表의 氣를 끈고이 하고 汗의 津液을 血의 개념(四物湯)으로 보완시킨 雙和湯으로 발전하였다. 表의 陽氣가 약하여 本의 寒水之氣가 停滯되어 蓄水證이 일어난 경우에는 五苓散(桂枝 白朮 茯苓 猪苓 澤瀉)을 사용하는 데 表의 陽氣를 도와주는 桂枝와 中焦의 濕을 分離시키는 茯苓과 白朮, 水를 直瀉시키는 猪苓과 澤瀉로 구성되어 있다. 太陽의 標陽이 膀胱經

을 따라 熱化되어 膀胱熱證이 생기면 蓄水證이 생기는 데 이를 조정하기 위한 약이 桃仁承氣湯, 抵當湯 等이다. 한편 表의 鬱熱이 甚하여 不惡寒, 發熱, 渴症 等이 생기는 증상을 溫病이라 하는데, 이를 治療하는 대표적인 處方은 麻仁石甘湯(麻黃 杏仁 石膏 甘草)으로 麻黃, 石膏의 辛溫, 辛涼氣味가 만나 表의 鬱熱을 清散시키는 作用을 하며 杏仁이 下降作用을, 甘草가 中和시키는 기능을 하여 溫病을 治療한다.

陽明은 濕土之氣를 從하며 多氣多血이기 때문에 熱을 發하여 津液을 달리는 우려가 있어 우선 陽明肌肉에 熱化(表證)에는 葛根湯(葛根 芍藥 麻黃 桂枝 生薑 大棗 甘草)으로 조절하는데 麻黃 桂枝는 肌肉의 鬱熱을 제거하고 동시에 發散시키는 作用을 하고, 葛根의 辛涼과 芍藥의 酸苦涼 氣味가 滋陰 清肌熱하고, 生薑 大棗 甘草는 陽氣의 근원이 되는 中焦의 陽氣를 회복하여 肌肉의 津液을 보충하는 機轉이 된다. 此의 熱化가 심하여 表證이 없고 脈洪大, 大汗, 大煩渴의 증상이 있을 때는 白虎湯(石膏 知母 粳米 甘草), 白虎加人參湯(石膏 知母 粳米 甘草 人參)으로 치료하는데, 石膏의 辛涼氣味와 知母의 苦寒氣味가 清肺熱하고 粳米의 甘潤味는 中焦의 甘潤劑로 津液을 補하며, 甘草의 甘平으로 中和胃氣하며 人參의 甘苦溫 氣味로 益氣生津시킨다. 陽明의 熱結로 인하여 胃家實이 된 경우 承氣湯(大承氣湯 小承氣湯 調胃承氣湯)을 사용하는데 鹹寒과 苦寒氣味로 瀉下하여 陰으로 歸化하게 하여 闔에 順하여 津液을 보존하여 中見의 濕(진액)을 따르는 機轉이 된다. 또한 食穀欲嘔로 나타나는 陽明의 虛寒證(陽明中寒)이 있어 太陰證과 유사하며, 此의 대표 처방은 吳茱萸湯, 四逆湯 等이 있다.

少陽은 相火이며, 多氣한 經이므로 發散 上升하는 初之氣로서 地氣의 根本으로 天氣로 化하는

半表半裏에서의 轉樞機轉이다. 上升機轉에서 鬱熱되기 쉬우며 이를 조절하는 대표적 治療處方은 小柴胡湯(柴胡 黃芩 人蔘 半夏 甘草 大棗 生薑)이다. 이는 人蔘 半夏 甘草 大棗 生薑으로 地氣인 太陰之氣를 補完하면서, 柴胡 黃芩을 사용하여 升散과 解鬱作用을 하여 地氣를 天氣로 變化시켜 升降, 轉樞作用을 하여 그 本을 따른다.

太陰은 陰濕하며 地氣를 나누어 주는 多氣한 經이다. 表證에는 桂枝湯類를 사용하여 雲霧之氣를 濕으로 化하는 것과 같이, 桂枝湯 또한 胃弱證에 사용하는 建中湯의 基礎가 되는 것이며, 裏證은 理中湯(人蔘 白朮 乾薑 甘草)과 四逆湯(甘草 乾薑 附子)을 이용하여 化濕 溫中으로 氣를 開하는 作用을 하여 本을 따른다.

少陰은 熱氣이며, 多氣한 經이며 上의 心火와 下의 腎水之氣가 서로 교류하는 水升火降의 轉樞機能이 원활하여야 한다. 下의 腎水之氣가 盛하여 된 寒化病人인 경우 玄武湯(茯苓 芍藥 附子 白朮)과 四逆湯(甘草 乾薑 附子)의 辛熱한 附子를 사용하여 寒證을 除하고 陽을 救하여 轉樞作用을 하도록 上升하고, 上의 心火가 盛한 熱化病人인 경우 黃連阿膠湯(黃連 黃芩 芍藥 阿膠 鷄子黃)의 苦寒한 藥을 사용하여 瀉火시켜 轉樞作用을 하도록 下降하므로 本의 熱과 標의 陰을 따른다. (從標從本)

厥陰은 和風이며, 多血少氣의 經이므로, 寒化하면 當歸四逆湯, 當歸四逆加吳茱萸生薑湯의 辛熱之劑를 사용하여 陽을 救하고 提溢하여 造血作用을 하며, 陽氣를 溫行시키는 藥으로 治하여 陰血을 지키는 방법을 삼으므로 後世人이 四物湯을 창안할 때 血中の 氣藥인 川芎을 첨가한다. 熱化病人인 경우 白頭翁湯(白頭翁 黃連 黃芩 秦皮)의 苦寒氣味の 藥을 사용하여 瀉火하며 苦味로 堅固하게 하여 泄瀉를 멈추어 闔作用을 순조롭게 한다.

結論

自然의 理致인 河圖 洛書를 바탕으로 三陰三陽을 類推하고 三陰三陽의 理論으로 人體 疾病의 進行 段階를 파악한 傷寒論은 自然의 理論에 맞추어 진 處方書이다. 그러므로 傷寒論은 韓醫學 理論의 經典인 〈黃帝 內經〉의 理論을 活用한 첫 臨床書이며, 張仲景은 傷寒 및 기타 雜病을 三陰三陽의 自然변화의 規律에 따라 分析하여 特徵的 症狀, 轉變段階, 治療原理, 處方 및 不適切한 治療의 轉變과 豫後를 상세히 記述하여 處方의 基本이 되는 指針을 세웠고 각 條文에 內包된 理論은 三陰三陽의 根本 原理에 充實되어 있다.

三陰三陽의 認識에서 六氣의 分析과 이에 따른 氣血多少, 標本中, 開闔樞, 從氣의 理論 등이 있으며, 治療概念에서도 이를 陰陽의 理論에 바탕을 둔 氣味學說, 浮沈升降學說을 중심으로 三陰三陽 各段階 別로 위의 認識에 根據하여 疾病治療를 하였고, 後世 金元四大家들은 이의 理論을 적용시키고 발달시켜 後世方을 創製하였다.

그러나 傷寒論의 根本이 되는 三陰三陽의 基本 理論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傷寒論의 接近은 단지 處方과 症狀의 接木일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이르렀고, 狹意의 傷寒病人 感氣疾病을 치료하는 處方書로만 認識하고 있다. 더욱이 傷寒論을 教科目에서 廢止하려는 妄想을 가지고 있는 실정은, 〈黃帝內經과 같이 韓醫學의 根本으로 생각하지 않는 愚昧한 結果인 것이다.

이에 著者는 傷寒論을 韓醫學 臨床의 基礎로 삼아 疾病을 分析하고, 理論 및 處方을 발전시키는 것이 지금 韓醫學을 研究하는 이의 所任이라 여기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參考文獻

1. 金赫濟 : 原本集註 周易, 명문당, 서울, 1983.
2. 李正來 : 醫易同源, 도서출판 동양학술원, 서울, 1993.
3. 李正來 : 東醫要諦眞詮, 태창출판사, 서울, 1992.
4. 王琦 外 4人 : 黃帝內經素問今釋, 성보사, 서울, 1983.
5. 李時珍 : 本草綱目, 고문사, 서울, 1982.
6. 朴贊國 : 傷寒論 三陰三陽에 대한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vol.7, 1993.